

대중가요 리메이크에 관한 연구 -‘Perhaps Love(사랑인가요)’를 중심으로-

문화영,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hwa02g@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Remake of Popular Songs -Focusing on the song ‘Perhaps Love(Is it love?)’-

Hwa-Yeong Mun,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현대의 대중음악은 빠르게 변화하며 많은 양의 신곡을 배출하고 있다. 많은 신곡 중 우리는 리메이크곡을 많이 접할 뿐만 아니라 인기차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원곡과 리메이크곡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가요 리메이크에 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곡과 리메이크곡 모두 많은 인기를 얻은 ‘Perhaps Love(사랑인가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리메이크곡은 악기 구성, 보컬 코러스, 멜로디, 연주기법 등 원곡의 의도는 헤치치 않으나 시대에 흐름에 맞추어 수정을 가하여 젊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버거운 기성세대들에게는 친밀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리메이크곡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곡이다 보니, 창작곡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창작의 고통이 적으므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창작을 중요시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이 있다. 다만 사회적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Perhaps Love(사랑인가요)

1. 서 론

하루에도 수십 곡의 신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친숙한 제목을 가진 곡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리메이크곡이다. 리메이크(Remake)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곡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1]. 근래에는 대중들의 향기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 영화 등의 OST로도 그 시대의 원곡보다는 다른 가수가 녹음하여 리메이크한 곡을 많이 쓰고 있다. 리메이크는 어떤 가수가 부르고, 어떻게 편곡하나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원곡이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성공적인 곡이라고 해도, 의도를 많이 헤치거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려워진다.

본 논문은 원곡과 리메이크곡의 분석을 통해 리메이크에 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Perhaps Love(사랑인가요)’는 원곡과 리메이크곡 모두 대중의 큰 인기를 받은 곡이기에 해당 곡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Perhaps Love(사랑인가요)’는 2006년에 제작 및 방영된 MBC 수목드라마 ‘궁’의 OST이다. 당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인 만큼, OST인 ‘Perhaps Love(사랑인가요)’ 또한 미니홈피의 BGM으로 설정해놓는 등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이 막 시작되는 느낌을 편안하면서도 고운 언어를 가사에 담아냈다[2]. 하울, 제이가 노래를 불렀으며, 작사는 김이나, 작곡 및 편곡은 박근철이 맡았다.

2.1 Perhaps Love(사랑인가요)-하울, 제이

노래를 부른 Howl(하울)의 본명은 김동욱으로, 2005년 1집 앨범 <한 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로 데뷔하였으며, 감미로운 목소리가 강점인 발라드 가수이다. 아시아의 ‘미성천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수많은 해외 팬을 보유한 차세대 한류스타이기도 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죽일 놈의 사랑’ 등 10여 편이 넘는 드라마 OST로 참여하며 프로듀서로서의 역량까지 인정받은 실력과 가수이다.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 J(제이)의 한국 이름은 정재영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한

